

## ‘나프타 대란’ 제조업 직격탄...생필품 품귀·가격도 쾡쾡

〈중동 사태 여파〉

여천 NCC 등 석유화학 기업, 가동 중단·긴급 대응  
식품·자동차 이어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도 직격탄  
종량제봉투·비닐대란에 사재기 조짐...소비자 불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공급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원재료 가격이 치솟고, 일부 품목은 수급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5·7·9면

업계에서는 당장 가격 인상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지역 산업계에서 ‘연쇄 섯다운’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자동차업계 수급 등 골머리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분해시설(NCC)에서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국내 정유사에서 일부 생산하지만 전체 소비량의 절반 수준은 수입으로 대체되며 이번 중동 사태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나프타는 54%에 이른다.

나프타 도입이 차질을 빚자 LG화학·롯데케미칼·여천NCC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일부 설비의 가동을 멈추거나 조정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나프타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얻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거쳐 가공된 플라스틱 수지(PE·PP·PET)가 비닐·용기·트레이 등 포장재로 사용된다. 또 에틸렌은 플라스틱·합성섬

유·합성고무·화학제품의 원료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섬유, 패션, 화장품, 플라스틱, 보일러,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 산업계가 연이어 멈출 위기에 놓였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생산 포기도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생수병과 세제통 등 생활필수품 용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품질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 사태 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사의 71.1%가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 및 중단 가능성 안내를 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실제 26일 한국플라스틱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사는 기존 t당 110만~145만원 수준이던 폴리에틸렌(PE) 가격을 200만원까지 인상했다.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원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체 중 급등한 원재료 가격에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한 플라스틱 배달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음 달부터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원재료 수급도 4월부터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생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중동사태 ‘불몽’ 도로·건설재 업계도 최근 노루메인트와 삼화페인트는 유가 급등에 직접 노출된 신나류 제품 가격을 각각 최대 55%, 40% 가량 인상했다.

KCC도 거래처와 대리점에 건축용 도로와 플렌트 도로, 공업용 도로 등의 가격을 최대 40%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남제비스코 역시 4월부터 품목별로 최소 15% 인상에 나선다.

도로 산업은 수지, 용제, 안료 등 석유화학 기반 원료 비중이 높아 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신나류는 원가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품목으로 꼽힌다.

PVC, 가소제, MMA 등 주요 원재료 상당수를 NCC에서 공급받는 건설재 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석유화학 연합 약화와 중동 사태가 맞물리며 NCC 가동률이 하락하고, 일부 공장 가동 중단 우려까지 커지면서 건설재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

해당 여파는 건설 현장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제외하면 건축 자재 상당수가 석유화학 제품과 연결돼 있는 만큼, 원재료 공급 차질이 누적되면 자체 생산 중단과 납기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면서 계속

윤용성 기자 yof1404@gwangnam.co.kr



중동사태로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의 한 농사용필을 생산공장에서 작업자가 필를생산라인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필를 생산용 원재료가 적정제고분의 절반만 남아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통합시장 경선후보들 “전남 동부권 표심 잡아라”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동부권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8·9면

전남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와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데다 ‘소외론’이 심심찮게 나오는 곳이라 맞춤형 공약 등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이 이번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최대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각 후보들이 이를 겨냥한 공약을 속속 내놓는 등 동부권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형배·주철현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남 동부권 미래 비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국립의대·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현안 관련 공약과 정견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의 압박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석유화학산단 고부가·친환경 산업 전환 △



김영록 강기정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  
민형배·주철현, 반도체 등 현안 공약 강기정·신정훈 “100만 경제 대도시” 김영록 “첨단 미래산업 콤플렉스 조성”

SMR(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도입 △수소 기반 산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간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균형 배치’란 해법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동부권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및 메모리 팹을 담당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결선 투표 진출 시 해당 공약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입을 모으

며 정책적 연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순천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고 전남 동부권 공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거 캠프와 함께 후원회 사무실은 후보마다 1곳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강 후보의 경우 캠프는 광주 서구 마북동에, 후원회 사무실은 순천에 차리면서 전남 동부권에 공을 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정부, 유류세 오늘부터 인하폭 확대

경유 10→25%·휘발유 7→15%...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에는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춘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

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던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제22회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나주 빛기람 호수공원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전라남도 전남 천년사찰 명상관광

## 천년의 숨결, 마음이 머무는 길

[전남의 사찰에서 누리는 힐링, 명상 여행]